

가시화된 분노와 구조적 역설: 반중 정서 프레임에 가려진 외국인 혐오와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 영향 요인

이민규(서울연구원)

논문요약

본 연구는 반중 정서가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과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핵심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 변수가 삶의 질 만족도와 음(-)의 관련성을 지니는지, 그리고 타국 출신 외국인 주민과의 상대적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계열 분석 결과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삶의 질 및 사회환경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나타냈다. 둘째, 요인별 분석 결과 사회통합 변수가 삶의 질 만족도를 저해하거나 하락시키는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나, 전체 설명력 측면에서는 제도·행정 변수의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타국 출신 외국인 주민과의 비교 분석 결과 한국 거주 중국인이 인식하는 거주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으며, 반중 정서와 직결된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요인 역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한국인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 맺기' 요인의 경우 타국 출신 외국인 주민이 느끼는 주관적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상의 실증 결과를 종합하면, 반중 정서가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 하락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다만 이는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한정된 현상이라기보다,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누적된 외국인 혐오 현상의 한 단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중 정서를 한중 관계 악화의 핵심 변수로 취급하여 양국 간 공식 외교 의제로 설정한 최근의 행보는 엄밀한 반추가 요구된다.

주제어: 반중 정서, 삶의 질 만족도, 외국인 혐오, 한중 관계, 사회통합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한국에서 ‘반중 정서’가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한국 관광산업에서 차지하는 절대적 비중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관광객은 기피 대상이 되었다. 더 나아가 중국인 밀집 지역은 치안이 좋지 않은 ‘범죄도시’로 인식되며, ‘에스닉 세그리게이션’(Ethnic Segregation)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반중 정서의 심각성은 정치권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친중’과 ‘반중’이 정쟁의 도구가 되면서, 극우화된 혐증을 일반적인 반중 정서와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¹⁾

문제는 반중 정서가 특정 개인의 경험에 바탕한 단기적 인식이 아닌 ‘인지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호감은 2015년 61.0%에서 2025년 19.0%까지 하락하였다.²⁾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한중 관계에 대한 판단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을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2015년 33.9%에서 2024년 10.3%까지 감소하였다.³⁾ 더 큰 문제는 대중국 이미지가 한국 거주 중국인에 대한 외국인 혐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⁴⁾ 실제로 2025년 3월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앞두고, ‘반중 정서와 혐오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가 190여 개 인권 단체의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⁵⁾ 반중 시위가 격화되면서 한국 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
- 1) “극우화된 ‘혐증’과 기존 ‘반중’ 구분해서 봐야.” 『시사HN』, 2025년 12월 4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860>(검색일: 2026.4.14.).
 - 2) Silver, Laura et al., “Views of China and Xi Jinping,” Pew Research Center, July 15 2025,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5/07/15/views-of-china-and-xi-jinping-2025/>(검색일: 2026.4.14.).
 - 3) 김범수 외, 『2025 통일의식조사』,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5, p.153. 2025년 조사에서 18.3%까지 반등하였지만, 추세적 변화 여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
 - 4) 네이버 DataLab의 검색어 트렌드를 살펴보면, 2024년 ‘반중’ 키워드 검색량이 ‘혐증’보다 많았던 것에 비해, 2025년 2월부터는 ‘혐증’ 검색량이 상대적으로 급증.
 - 5) “이주민들 ‘인종차별 철폐의 날’ 앞두고 집회…혐오 중단 촉구.” 『연합뉴스』, 2025년 3월 1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6032000004>(검색일: 2026.4.16.).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⁶⁾

한국 내 반중 정서가 심해지면서 현상과 원인 등을 분석한 연구 성과도 축적되고 있다. 이민규는 반중 정서 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기대심리와 위협 의식이라는 두 측면에서 분석하며,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외교·안보,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세 분야에서 발생한 사건을 추적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수교 당시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기대심리가 무너짐과 동시에 30년 동안 발생한 유사한 사건과 사고가 미해결 상태로 축적되면서 ‘인지화’ 되었다고 주장한다.⁷⁾ 반중 정서를 유발한 사건을 추적한 유사 연구로는 최윤경의 네이버 뉴스 분석이 있으며, 그는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발생한 사건을 키워드 빈도분석과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연도별 핵심 사건을 밝히는 시도를 하였다.⁸⁾ 한편, 특정 세대의 반중 정서는 주요 연구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젊은 세대가 보수화되면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게 된다. 조의행은 한국 젊은 세대가 개인주의와 민족주의 성향을 보이는 상황에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부정적 경험에 더해 한중 간 발생한 정치·역사적 이슈가 반중 정서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한다.⁹⁾ 반중 정서 형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연구 시작으로는 한국 언론의 보도 형태를 들 수 있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모두 중국 관련 사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보수언론이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진보언론은 미국에 대한 지나친 안보 의존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¹⁰⁾

-
- 6) “‘집 밖에선 중국어 안 써요’ 재한 중국인들이 사는 법.” 『경향신문』, 2025년 12월 7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70900021/?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utm_campaign=khan#ENT\(검색일: 2026.4.17.\)](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70900021/?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utm_campaign=khan#ENT(검색일: 2026.4.17.)).
- 7) 이민규, “무너진 기대심리: 한국인의 반중 정서 요인 분석.” 『중국지식네트워크』 제21호, 2023, pp. 177~218.
- 8) 최윤경, “2017~2022년, 한국의 반중(反中) 의미 - 네이버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 『동서인문』 제21호, 2023, pp. 59~93.
- 9) 조의행, “MZ세대의 반중감정: 그 현황과 전망.” 『역사와 융합』 통권 10호, 2022, pp. 175~208.
- 10) 정소영·김희교, “의미연결망분석과 감정분석을 통해 본 한국 언론의 중국 보도와 반중 감정 - 코로나 19 사태 전후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110권 110호, 2022, pp. 109~137; 김선아, “한국 내 중국 뉴스 편역 양상 - 조선일보, 한계레신문을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6호, 2022, pp. 3~32.

이상의 연구는 국가 이미지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외국인 혐오의 관점에서 중국인 혐오를 분석한 연구는 적은 편이다.¹¹⁾ 중국인 혐오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 성과가 일부 존재하지만, 반중 정서와의 관련성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¹²⁾ 한편, 연구 대상이 주로 한국인에 한정되어 있어, 반중 정서 더 나아가 중국인 혐오가 한국 거주 중국인(가장 노출된 대상)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 영향의 정도가 어떠한지 파악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한국 거주 중국인 유학생과 고령자의 삶의 질 만족도와 행복도가 예상과 달리 타국 출신 외국인 주민 대비 높다는 실정 연구 결과가 있지만, 출신 국가 간 비교가 핵심일 뿐 아니라 상관관계 분석 등을 채택한 연구로 연구방법론에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¹³⁾ 즉, 중국인 혐오가 단순한 관념 수준의 문제인지, 실제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이슈인지 체계적으로 검증되고 있지 않다.¹⁴⁾

더불어 한국이 국적·인종 차별이 심한 국가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외국인 혐오 혹은 차별이 중국 출신에게만 국한된 현상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¹⁵⁾ 외국인 혐오의 한 단면으로서 중국인 혐오 현상과

- 11) 외국인 혐오(제노포비아)는 외국 이주민 혹은 이방인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차별적 심리와 태도를 의미. 배제의 심리 이면에는 '우월감'이 내포되어 있어 타민족 혹은 인종에 대한 차별 의식과 결합, 단순한 국적의 다름이 아닌 나(우리)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외국 이주민을 대상화. Christina, Steenkamp, "Xenophobia in South Africa: What Does it Say about Trust?" *The Round Table*, Vol.98, No.403, 2009, p.439; 김미영, "한국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재고(再考): 다문화수용성과 제노포비아(xenophobia),"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6집, pp. 55~56.
- 12) 이민규, "범죄자가 된 오래된 친구: 한국인의 중국인 혐오 실태 분석," 『한중관계연구』 제11권 제3호, 2025, pp. 117~134.
- 13) 이민규, "차가운 시선과 일상의 온도: 반중 정서 확산 속 중국인 유학생과 타 국가 유학생의 삶의 질 비교 분석," 『아태연구』 제33권 1호, 2026, pp. 105~126; 이민규, "함께 늘어가는 중국인 이웃: 서울 거주 중국 출신 고령자의 행복도 비교연구," 『다문화와 평화』 제20권 1호, pp. 44~60.
- 14) 중국인 유학생 대상 차별 경험과 심리를 분석한 연구는 장이츠·김민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한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 『사회복지연구』 제52권 2호, 2021, pp. 65~93; 강정은·나윤경, "중국인을 향한 '미완'(未完)의 혐오 - 재한 중국 유학생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혐오 -," 『동북아문화연구』 제1권 84호, 2025, pp. 91~111.
- 15) US뉴스&월드리포트가 2024년 전 세계 89개국 1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한국은 인종 형평성(Racial Equity)이 안 좋은 국가 5위에 랭킹이 됨. "Best Countries." U.S.News & World Report, <https://www.usnews.com/news/best-countries>(검색일: 2026.4.20.).

특정 국가 출신 집단에 대한 중국인 혐오는 정책적·사회적 함의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반중 정서가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과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①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가 하락하는 동안 한국 거주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의 삶의 질 만족도는 하락하였는가? 이와 관련하여, ②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 ③ 외국인 혐오 요인이 실제 삶의 질 만족도에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④ 타국 출신 외국인 주민 대비 차별 대우를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반중 정서 연구를 이민학·사회학 분야와 융합하여 분석 관점을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중국 출신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활용 가치가 있다. 한편으로 한중 관계 악화의 원인으로 반중 정서가 일종의 ‘비난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핵심 변수인지를 객관적으로 진단한다는 측면도 있다.

2. 연구 배경과 목적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혐오의 한 형태로서 반중 정서가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분석 자료로 ‘서울서베이’ 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서울서베이는 서울시가 내국인(2만 가구, 시민 5천 명)과 외국인(2,500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비자 유형별·국적별·인구사회학적 변수별 삶의 질 만족도/행복도, 거주 어려움, 차별 대우 경험 등의 다양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횡·종단적 비교 분석이 가능한 자료라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크다. 서울서베이 자료 활용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2024년 말 기준 서울은 전국 외국인 주민 중 약 17.5%(약 45만 명, 2016년 대비 11.6% 증가)가 거주 중이다. 이중 한국계 중국인이 약 41.0%, 중국인이 약 18.1%로 대표적인 중국 출신 외국인 주민 비중이 큰 지역(전국의 28.6%)이다.¹⁶⁾ 서울은 중국인의 경험과 인식을 대표적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통계학적으로도

전국 단위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7개 광역 자치단체별 국적·비자 유형·인구사회학적 변수가 적용된 유의미한 표본량을 확보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관점에서, 서울서베이 설문조사 결과는 본 연구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적절한 분석 자료로 판단된다.

둘째, 분석 대상은 중국 출신 외국인 주민으로 설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통계 기준에 따라 ‘중국인’뿐 아니라 ‘한국계 중국인’ 또한 포함하였다(N=1,014명).¹⁷⁾ 한편, 중국인 인식의 상대적 현황을 비교·검증하기 위해, ① 중국 출신과 타국 출신 외국인 주민 간, ② 중국 출신과 개별 국가 출신 외국인 주민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들 집단 간 삶의 질 만족도와 외국인 혐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표 1〉 참조). 국가 간 비교 분석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실시하였는데, ① 중국 출신과 비중국 출신 비교, ② 중국, 베트남, 몽골 출신 비교가 해당된다. 베트남, 몽골 출신과의 비교는 두 국적 모두 2016년 대비 급증한 외국인 주민으로 서울 내 두 번째(7.3%, 167.0%)와 다섯 번째(3.7%, 100.1%)로 비중이 크다. 동남아시아와 타 동북아시아 출신과의 인식 비교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하다.

한편, 분석 기간은 2025년을 기준으로, 한중 관계 악화에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 사드(THAAD) 배치와 반중 정서 확산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는 코로나 19를 주요 시점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코로나19는 외국인 유·출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환경적 변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 만족도 종단적 비교를 위해 2017년(2016년 사드배치 영향이 실질적으로 끼친 시점)과 2022년(코로나19 종식)을 비교 시점으로 설정하여,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와 외국인 혐오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횡단적 분석은 최

16) 외국인 주민 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 같은 경우, 중국 출신 비율이 47.2%로 서울시 대비 낮음. 이뿐만 아니라 ‘중국인’ 9.6%, ‘한국계 중국인’ 37.6%로 편차가 심하여 분석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음.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4.11.1. 기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2025년 10월 31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_TR_000000000014&nttId=121226(검색일: 2026.4.10.).

17) 본문에서 중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분해서 서술할 경우 명시하였음을 특별히 밝힘.

신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인식 변화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2025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표 1〉 국가 출신별 응답자 주요 현황

구분	중국 출신 (N=1,014명)	비중국 출신 (N=1,486명)
성별	남성: 43.5% 여성: 56.5%	남성: 42.5% 여성: 57.5%
체류 자격	재외동포(F4): 27.5% 방문취업(H2): 21.1% 영주자(F5): 18.0% 등	유학(D2, D4): 21.3% 재외동포(F4): 20.9% 결혼이민자(F6): 11.3% 등
학력	4년제 이상: 42.1% 2, 3년제: 18.3% 고등학교: 15.8% 등	4년제 이상: 49.3% 2, 3년제: 19.1% 고등학교: 18.0% 등
구분	베트남 출신 (N=189명)	몽골 출신 (N=48명)
성별	남성: 32.3% 여성: 67.7%	남성: 47.9% 여성: 52.1%
체류 자격	유학(D2, D4): 40.7% 결혼이민자(F6): 14.8% 방문동거/거주/동반(F1~F3): 14.8% 등	유학(D2, D4): 37.5% 재외동포(F4): 25.0% 영주자(F5): 10.4% 등
학력	4년제 이상: 56.1% 석사 과정: 20.1% 고등학교: 11.6% 등	4년제 이상: 39.6% 고등학교: 39.6% 2, 3년제: 12.5% 등

출처: 2025년 서울서베이 원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셋째, 분석 변수는 크게 삶의 질 만족도와 외국인 혐오의 두 범주로 구성되며, 각각 다음과 같은 세부 항목을 포함하였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삶의 질 만족도는 ① 주거환경, ② 경제환경, ③ 복지환경, ④ 사회환경, ⑤ 교육환경, ⑥ 도시안전, ⑦ 문화여가환경의 일곱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평균값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평균값인 삶의 질 만족도와 반증 정서와 직결된 사회환경 만족도 두 가지 변수를 핵심 변수로 설정하였다.¹⁸⁾ 한편, 거주 어려움은 ① 언어, ② 생활·문화, ③ 제도·행정, ④ 사회통합, ⑤ 경제·교육의 다섯 가지 분

18) 참고로, 문화여가환경 변수는 2025년 설문조사부터 추가된 문항임을 특별히 밝힘.

야로 설정하고 각각을 측정하기 위해 관련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언어를 제외한 네 가지 분야 모두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 0.6 이상을 기준으로 삼았고, 자녀 양육 및 교육 변수는 결측 비율이 50.5%로 평균값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표 2〉 연구 변수와 관련 문항

변수	문항	
삶의 질 만족도	주거환경(상·하수도, 전기, 통신, 주택, 교통, 녹지 등)	
	경제환경(구직, 소득, 근로시간 등)	
	복지환경(의료, 사회보장 등)	
	사회환경(외국인에 대한 배려, 포용성 등)	
	교육환경(교육비, 교육기회 등)	
	도시안전(범죄, 사고, 재해 등)	
	문화여가환경(도서관, 공연장, 미술관, 공원 등)	
거주 어려움	언어	-
	생활·문화	• 자녀 양육 및 교육 • 한국식 생활 문화 적응 • 음식 • 의료 기관 이용
	제도·행정	• 공공 행정기관을 통한 민원 제기 및 해결 • 비자 등 체류 자격 취득 및 변경 • 주택 등 주거 공간
	사회통합	•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 한국인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 맺기
	경제·교육	• 경제 활동 기회 획득 •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기회 획득
	인구·사회	체류 자격, 학력, 수입

출처: 서울특별시, “2025 서울서베이 결과 보고서.” 2025년 12월 바탕으로 저자 작성.

넷째, 분석 결과는 기술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삶의 질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거주 어려움 요인(특히, 외국인 혐오)을 검증하기 위해 선형 라소 회귀분석(Linear Lasso Regression)과 상대적 중요도(Relative Importance) 분석을 각각 실시였다. 선형 라소 회귀분석으로 관련 분야를 선별한 이후, 상대적 중요도 분석으로 재차 검증하였다. 그리고 선별된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이슈

의 관련 정도와 해석 수준을 살펴보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외국인 혐오(혹은 반중 정서)와 직결된 사회통합 분야의 관련성 여부와 사회통합의 두 가지 이슈 중 어느 것이 해석력이 더 높은지를 검증하였다.

한편, 비교 집단에 따라 t-test 및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적용하였다. 중국 출신 외국인 주민과 타국 출신 외국인 주민 간 비교에서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국적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한 후, Tukey/Games-Howell 사후 검정을 통해 어떠한 국가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 자료는 가중치를 보정한 것이고(표준화 가중치를 중국인 실제 응답자 수 1,014명의 합과 일치하도록 재표준화 실시), 결국 값은 EM(Expectation-Maximization) 대체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회귀 분석에 앞서 표준화 처리를 하였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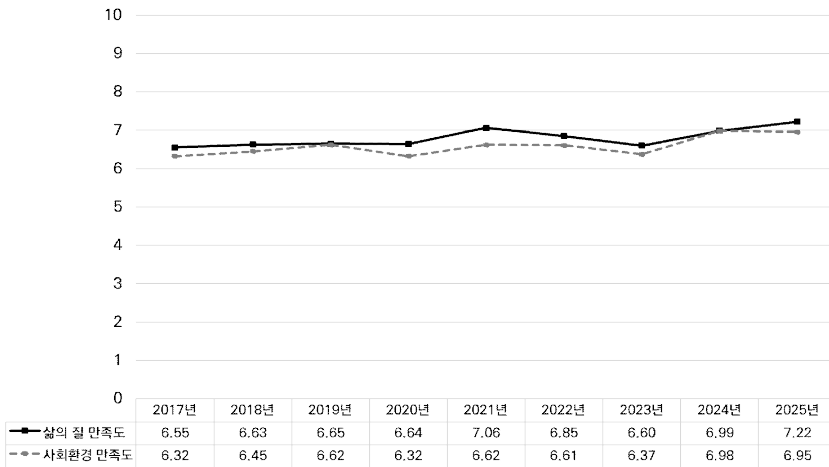
II.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 추세

1.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 현황과 추세적 특징

한국 거주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제외)의 삶의 질 만족도는 시기별로 일부 변동성을 나타내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서울서베이’ 삶의 질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10점 만점 기준)는 2017년 6.55점에서 2025년 7.22점으로 총 0.67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우상향 흐름을 보였던 삶의 질 만족도는, 엔데믹 전환 이후 오히려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23년을 저점으로 재차 반등하였다. 이상의 추이를 종합해 볼 때, 반중 정서가 악화되는 기간에도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는 도리어 우상향하는 흐름을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9) 본 연구는 표본 추출 설계 정보인 층화 변수(Strata)와 집락 변수(Cluster)가 데이터셋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복합 표본 디자인(Complex Sample Design)을 완벽히 반영한 복합 표본 분석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상의 방법을 채택하였음을 특별히 밝힘.

〈그림 1〉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 현황과 추세



출처: 역대 서울서베이 보고서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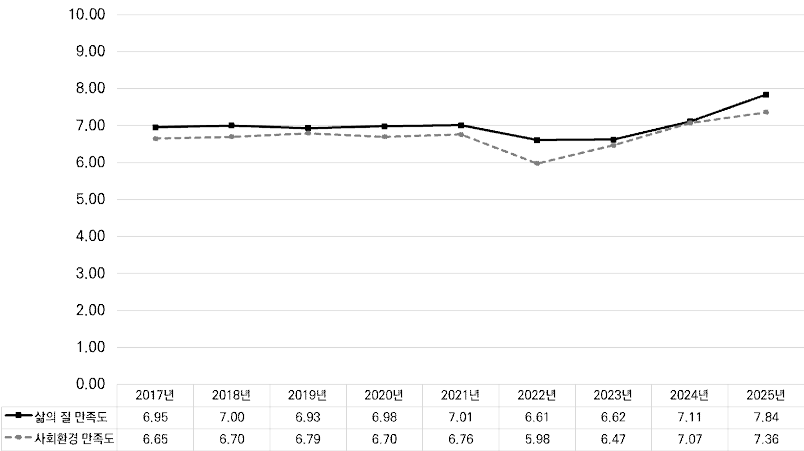
사회환경 만족도의 경우 2017년 6.32점에서 2025년 6.95점으로 총 0.6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인 2020년에는 6.32점까지 하락하였으나 2021년에는 6.62점까지 회복되었다. 이후 2023년 다시금 6.37점까지 하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으나, 이를 저점으로 재차 우상향 흐름을 나타냈다. 비록 사드배치와 코로나19 직후에는 사회환경 만족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특징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회복 속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삶의 질 만족도 평균에 비해서는 사회환경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와 사회환경 만족도는 특정 시기에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장기적인 변동성 속에서도 우상향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2. 한국계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 현황과 추세적 특징

한국 거주 한국계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 역시 시기별로 일부 변동성을 나타냈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의 ‘서울서베이’ 삶의 질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들의 삶의 질 만족도는 2017년 6.95점에서 2025년 7.84점으로 총 0.89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계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2022년 6.61점까지 하락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다시금 우상향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반증 정서가 지속해서 악화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계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는 오히려 그 이전 시기보다 더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한국 거주 한국계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 현황과 추세



출처: 역대 서울서베이 보고서 바탕으로 저자 작성.

한국계 중국인의 사회환경 만족도 또한 삶의 질 만족도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추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사회환경 만족도는 2017년 6.65점에서 2025년 7.36점으로 총 0.71점 상승하였다. 사회환경 만족도 역시 2022년 5.98점까지 하락하며 저점을 기록했으나, 이후 반등하여 2025년에는 7.36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한국 거주 한국계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종식 이후 반증 정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사회적 흐름과는 반대로 도리어 우상향 흐름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참조).

Ⅲ. 반증 정서와 삶의 질 만족도 관계 재해석

1. 삶의 질 만족도 하락 요인: 주요 분야와 이슈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분야와 핵심 이슈를 분석한 결과, ‘제도·행정’ 분야가 삶의 질 만족도 하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체 설명력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소 회귀분석 결과(Holdout $R^2=.355$), 언어, 생활·문화, 제도·행정, 사회통합, 경제·교육 중 ① 사회통합, ② 제도·행정, ③ 경제·교육의 세 가지 분야가 주요 변수로 선택되었다. 모두 음(-)의 β 값을 나타내어, 삶의 질 만족도를 저해하거나 하락시키는 주요 분야임이 확인되었다. 이 중, 세 가지 분야만을 대상으로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R^2=.4018$), 제도·행정 분야가 전체 설명력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W=.372$).

〈표 3〉 중국 출신 외국인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와 영향 분야

구분	언어	생활·문화	제도·행정	사회통합	경제·교육
β	-	-	-.307	-.162	-.064
RW	-	-	.325	.236	.193

주1. 삶의 질 만족도 Cronbach's $\alpha=.870$

주2. 자녀 양육 및 교육 변수는 결측 비율 50.5%로 제외

주3. 상대적 중요도 분석은 5개 분야 모두 포함

주4. Holdout $R^2=.355$, $R^2=.4138$

주5. EM Little MCAR 검증: $\chi^2=697.325$, $p<0.001$

출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제도·행정 분야 중 삶의 질 만족도 하락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를 분석한 결과, ① 비자 등 체류 자격 취득 및 변경($RW=.482$), ② 주택 등 주거 공간($RW=.203$), ③ 공공 행정 기관을 통한 민원 제기 및 해결($RW=.197$)의 세 가지 이슈 모두 삶의 질 만족도를 하락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중에서도 비자 등 체류 자격 취득 및 변경 이슈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통합 분야 역시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 하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RW 값을 나타냈다. 즉, 반중 정서가 삶의 질 만족도 하락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핵심 영향 요인 분석에서도 확인되는데(Holdout $R^2=.284$), ①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RW=.445$), ② 한국인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 맺기($RW=.402$) 두 변수 모두 β 값이 음(-)의 방향을 나타냈으며($R^2=.3304$), 이중 전자의 RW 값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 거주 중국인이 반중 정서나 외국인 혐오 현상을 단순한 감정적 지각 수준을 넘어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 중국 출신 외국인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핵심 이슈

분야	핵심 이슈	β	RW
언어	-	-	-
생활·문화	-	-	-
제도·행정	공공 행정기관을 통한 민원 제기 및 해결	-.089	.197
	비자 등 체류 자격 취득 및 변경	-.366	.482
	주택 등 주거 공간	-.082	.203
사회통합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241	.445
	한국인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 맺기	-.204	.402
경제·교육	경제 활동 기회 획득	-.372	.566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기회 획득	-.133	.287

주1. 분야별 핵심 이슈만 분석 대상에 포함

주2. 제도·행정 Holdout $R^2=.374$, $R^2=.3952$

주3. 사회통합 Holdout $R^2=.284$, $R^2=.3304$

주4. 경제·교육 Holdout $R^2=.239$, $R^2=.3136$

출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경제·교육 분야 또한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 하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록 제도·행정 및 사회통합 분야보다 관련성은 낮지만, 일정 수준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R^2=.193$). 해당 분야 내에서는 경제 활동 기회 획득 어려움이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기회 획득보다 삶의 질 만족도를 하락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R^2=.566$).

결론적으로 반중 정서가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에 부정적인 요인임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단, 비자 등 제도·행정적인 요인이 설명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 하락에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며, 그중에서도 제도·행정 분야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표 3〉와 〈표 4〉 참조).

2. 상대적인 거주 어려움과 외국인 혐오 인식 비교

한국 거주 중국인이 인식하는 상대적 거주 어려움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중 정서와 직결된 사회통합 이슈의 경우, 타국 출신 외국인 주민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양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선, 12가지 거주 어려움 이슈 중 한국 거주 중국인이 타국 출신 외국인 주민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슈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히려 9가지 이슈에서는 타국 출신 외국인 주민이 느끼는 거주 어려움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제 활동 기회 획득 이슈에서만 중국인이 인식하는 어려움 정도가 2.93/5.0점으로 타국 출신보다 0.02점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반중 정서와 직결된 사회통합 관련 두 가지 이슈에서 한국 거주 중국인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2.70/5.0점으로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타국 출신 외국인 주민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한국인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 맺기 같은 경우는 타국 출신 외국인 주민이 느끼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욱 큰 것으로 밝혀졌다(〈표 5〉 참조).

〈표 5〉 중국과 타국 출신 외국인 주민의 거주 어려움 비교

거주 어려움		중국	타국	비교
언어		2.16	2.77	-14.339 ^{***} (Cohen's d -.589)
생활·문화	자녀 양육 및 교육	2.80	2.87	-1.114 (Cohen's d -.063)
	한국식 생활 문화 적응	2.27	2.73	-11.683 ^{***} (Cohen's d -.480)
	음식	2.12	2.58	-10.453 ^{***} (Cohen's d -.435)
	의료 기관 이용	2.72	2.87	-3.323 ^{***} (Cohen's d -.129)
제도·행정	공공 행정기관을 통한 민원 제기 및 해결	2.84	3.06	-5.018 ^{***} (Cohen's d -.199)
	비자 등 체류 자격 취득 및 변경	2.70	2.93	-5.163 ^{***} (Cohen's d -.199)
	주택 등 주거 공간	2.58	2.90	-7.739 ^{***} (Cohen's d -.309)
사회통합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2.70	2.75	-1.145 (Cohen's d -.046)
	한국인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 맺기	2.64	2.80	-3.966 ^{***} (Cohen's d -.158)
경제·교육	경제 활동 기회 획득	2.93	2.91	.415 (Cohen's d .016)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기회 획득	2.53	2.81	-6.997 ^{***} (Cohen's d -.277)

주1. 자녀 양육 및 교육 변수는 높은 결측으로 인해 분석별 결측값 제외(Pairwise Deletion) 처리를 선택.
나머지 변수는 EM 대체 후 분석

주2. EM Little MCAR 검증: $\chi^2=465.859$, $p<0.001$

주3. * $p<0.05$, ** $p<0.01$, *** $p<0.001$

출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국, 베트남, 몽골 출신 외국인 주민의 12가지 거주 어려움 인식을 비교한 분석에서도 중국 출신이 베트남, 몽골 출신보다 더욱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이슈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혐오와 관련된 사회통합 두 가지 이슈 역시 베트남과 몽골 출신 외국인 주민이 느끼는 어려움이 더욱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2가지 거주 어려움 이슈 중 베트남 출신이 중국 출신보다 더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총 9가지로 나타났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한국인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 맺기 두 이슈도 중국 출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몽골 출신 같은 경우는 베트남 출신 대비 중국 출신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더욱 부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가지 이슈에서 중국 출신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유사한 수준이고, 한국인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 맺기는 어렵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중국, 베트남, 몽골 출신 외국인 주민의 거주 어려움 비교

거주 어려움		F	중국 출신 비교
언어		54.773***	베트남($\Delta M = -.958^{***}$) 몽골($\Delta M = -.744^{***}$)
생활·문화	자녀 양육 및 교육	1.954	-
	한국식 생활 문화 적응	23.531***	베트남($\Delta M = -.622^{***}$) 몽골($\Delta M = -.365^{**}$)
	음식	16.239***	베트남($\Delta M = -.618^{***}$) 몽골($\Delta M = -.364^{*}$)
	의료 기관 이용	1.213	-
제도·행정	공공 행정기관을 통한 민원 제기 및 해결	11.063***	베트남($\Delta M = -.32532^{**}$) 몽골($\Delta M = -.59242^{**}$)
	비자 등 체류 자격 취득 및 변경	8.394***	베트남($\Delta M = -.417^{***}$)
	주택 등 주거 공간	9.368***	베트남($\Delta M = -.376^{***}$)
사회통합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7.016**	베트남($\Delta M = -.369^{***}$)
	한국인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 맺기	13.503***	베트남($\Delta M = -.448^{***}$) 몽골($\Delta M = -.345^{*}$)
경제·교육	경제 활동 기회 획득	2.799	-
	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기회 획득	6.706**	베트남($\Delta M = -.252^{*}$) 몽골($\Delta M = -.356^{*}$)

주1. 자녀 양육 및 교육 변수는 높은 결측(51.8%)으로 인해 분석별 결측값 제외(Pairwise Deletion) 처리를 선택.
나머지 변수는 EM 대체 후 분석

주2. EM Little MCAR 검증: $\chi^2=393.418$, $p<0.001$

주3. * $p<0.05$, ** $p<0.01$, *** $p<0.001$

출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상의 분석 결과는 반중 정서를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형성된 독립된 ‘혐오’라기보다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누적된 외국인 혐오 현상의 한 단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타당함을 시사한다. 오히려, 차별과 편견을 ‘받는’ 외국인 주민의 체감 수준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인 혐오보다 베트남 등 타 국가 출신의 ‘혐오’가 더욱 심각하다 하겠다.

IV. 결론

본 연구는 반중 정서가 주요한 정치·사회적 의제로 부상한 현시점에서,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과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핵심 목적을 두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①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가 하락하는 동안 한국 거주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의 삶의 질 만족도가 실제로 저하되었는지의 여부, ②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주 어려움 분야와 세부 이슈, 특히 외국인 혐오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의 유무, ③ 타국 출신 외국인 주민과의 주관적 인식 차이 등을 단계별로 검증하였다.

우선, 한국인의 대중국 호감도가 2015년 61.0%에서 2025년 19.0%까지 하락하는 동안, 한국 거주 중국인과 한국계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는 각각 7.22점(2017년 6.55점)과 7.84점(2017년 6.95점)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위상향 추세를 나타냈다. 비록 2023년에 각각 6.60점과 6.62점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후 재차 반등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하였다. 이는 대중국 호감도가 2024년 25.0%까지 다소 상승하였다가 다시금 급락한 현상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흐름이다. 반중 정서와 직결된 사회환경 만족도 역시 전체 삶의 질 만족도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5년 기준 각각 6.95점과 7.36점으로 도리어 상승세를 보였다. 물론 삶의 질 만족도 형성에 미치는 요인이 다각적이라는 측면에서 반중 정서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일반적인 예상과 다른 상반된 추이가 나타났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반중 정서가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삶의 질 만족도 하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다섯 가지 분야 중 상대적 설명력이 가장 큰

변수는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억제하거나 하락시키는 방향의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 만족도를 통계적으로 저해하거나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제도·행정, 사회통합, 경제·교육 분야가 삶의 질 만족도 하락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그중에서도 제도·행정 분야가 전체 설명력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중 정서와 직결된 사회통합 분야의 경우, 하위 요인인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과 ‘한국인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 맺기’ 모두 만족도 하락과 관련이 있었으며, 두 변수의 상대적 중요도는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종합하면, 비록 한국 거주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의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는 시계열상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반중 정서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간과할 수 없을 만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높은(그리고 우상향) 삶의 질 만족도가 외국인 혐오(중국인에 대한 반중 정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역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삶의 질 만족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긍정적 요인이 부정적 요인보다 큼)의 정도가 작을 뿐이라고 일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타국 출신 외국인 주민의 인식과 비교 분석한 결과, 외국인 혐오 현상과 직결된 사회통합 이슈에 대해 한국 거주 중국인들은 타국 출신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적게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조사 대상인 12가지 거주 어려움 이슈 중 중국인이 타국 출신 외국인 주민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슈는 단 하나도 없었다. 역으로, 9개 이슈에서는 타국 출신 외국인 주민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인 ‘한국인과의 원활한 유대 관계 맺기’ 이슈 역시 타국 출신 외국인 주민이 겪는 주관적 어려움이 중국 출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규명되었다.

중국, 베트남, 몽골 3개국 출신 외국인 주민의 12가지 거주 어려움 인식을 비교한 분석에서도 중국 출신이 베트남, 몽골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이슈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혐오와 관련된 사회통합 두 가지 이슈 역시 베트남과 몽골 출신 외국인 주민이 느끼는 어려움이 더욱 크거나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반중 정서가 한국 거주 중국인의 삶의 질 만

족도 하락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 다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현상이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에만 한정되는 독자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누적된 외국인 혐오 현상의 한 단면이라는 사실이다. 특히 혐오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관점에서 볼 때, 타국 출신 외국인 주민이 인식하는 거주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정적이었다는 통계적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반중 정서라는 미시적 프레임에 매몰되기보다, 외국인 혐오라는 전 사회적 차원의 구조적 이슈로 접근의 지평을 넓혀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반중 정서가 한중 양국 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로 다루어질 만큼 양국 관계 악화의 핵심 변수로 중시되는 최근의 현상에 대해서는 엄밀한 반추가 요구된다. 반중 정서가 실제 양국 관계의 실질적 악화에 어떠한 인과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 검증조차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특정 집단에 ‘원인 제공자’라는 부정적 낙인을 고착화할 수 있는 사안을 공식 외교 의제로 격상시키는 것은 실익보다 실책이 더 큰 결정일 수밖에 없다.

참고문헌

- 강정은·나운경, “중국인을 향한 ‘미완’(未完)의 혐오 - 재한 중국 유학생을 통해 본 한국 사회의 혐오 -.” 『동북아문화연구』 제1권 84호, 2025.
- 김미영, “한국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재고(再考): 다문화수용성과 제노포비아(xenophobia).” 『다문화콘텐츠연구』 제36집.
- 김범수 외, 『2025 통일외식조사』,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5.
- 김선아, “한국 내 중국 뉴스 편역 양상 - 조선일보, 한계레신문을 중심으로.” 『한중언어문화연구』 제66호, 2022.
- 서울특별시, “2025 서울서베이 결과 보고서.” 2025년 12월.
- 이민규, “무너진 기대심리: 한국인의 반중 정서 요인 분석.” 『중국지식네트워크』 제21호, 2023.
- _____, “범죄자가 된 오래된 친구: 한국인의 중국인 혐오 실태 분석.” 『한중관계연구』 제11권 제3호, 2025.
- _____, “차가운 시선과 일상의 온도: 반중 정서 확산 속 중국인 유학생과 타 국가 유학생의 삶의 질 비교 분석.” 『아태연구』 제33권 1호, 2026.
- _____, “함께 나아가는 중국인 이웃: 서울 거주 중국 출신 고령자의 행복도 비교연구.” 『다문화와 평화』 제20권 1호, 2006.
- 장이츠·김민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한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심리사회적 어려움과 서비스 욕구.” 『사회복지연구』 제52권 2호, 2021.
- 정소영·김희교, “의미연결망분석과 감정분석을 통해 본 한국 언론의 중국 보도와 반중 감정 - 코로나 19 사태 전후를 중심으로.” 『중국어문논총』 제110권 110호, 2022.
- 조의행, “MZ세대의 반중감정: 그 현황과 전망.” 『역사와 융합』 통권 10호, 2022.
- 최윤경, “2017~2022년, 한국의 반중(反中) 의미 - 네이버 뉴스 분석을 중심으로 -.” 『동서인문』 제21호, 2023.
- Christina, Steenkamp, “Xenophobia in South Africa: What Does it Say about Trust?” The Round Table, Vol.98, No.403, 2009.
- “극우화된 ‘혐중’과 기존 ‘반중’ 구분해서 봐야.” 『시사IN』, 2025년 12월 4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860>(검색일: 2026.4.14.).
- “이주민들 ‘인종차별 철폐의 날’ 앞두고 집회…혐오 중단 촉구.” 『연합뉴스』, 2025년 3월 16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6032000004>(검색일: 2026.4.16.).
- “‘집 밖에선 중국어 안 써요’ 재한 중국인들이 사는 법.” 『경향신문』, 2025년 12월 7일,

https://www.khan.co.kr/article/202512070900021/?utm_source=twitter&utm_medium=social&utm_campaign=khan#ENT(검색일: 2026.4.17.).

“202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24.11.1. 기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2025년 10월 31일.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121226(검색일: 2026.4.10.).

“Best Countries.” U.S.News & World Report,

<https://www.usnews.com/news/best-countries>(검색일: 2026.4.20.).

Silver, Laura et al., “Views of China and Xi Jinping.” Pew Research Center, July 15 2025,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5/07/15/views-of-china-and-xi-jinping-2025/>(검색일: 2026.4.14.).

Abstract

**Visualized Anger and Structural Paradox:
Xenophobia Behind Anti-Chinese Frames and Determinants of Chinese
Residents' Quality of Life**

Lee, Min-gyu(The Seoul Institut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xtent to which anti-Chinese sentiment impacts the quality of life (QoL) of Chinese residents in South Korea. Specifically, it examines whether social integration variables negatively correlate with QoL satisfaction and tests statistical differences between Chinese residents and other foreign national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QoL and social environment satisfaction of Chinese residents show an overall upward trend. Second, while social integration variables constrain QoL satisfaction, i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variables contribute most significantly to the overall explanatory power. Third, compared to other foreign nationals, Chinese residents report lower levels of residential difficulties. Their perception of "social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ers"—an issue directly linked to anti-Chinese sentiment—remains at a similar level to that of other nationalities. Notably, foreign nationals from other countries report greater difficulties in "establishing smooth social ties with Koreans."

In conclusion, while statistical evidence confirms that anti-Chinese sentiment negatively affects the QoL satisfaction of Chinese residents, this should be interpreted as a manifestation of broader xenophobia pervasive in Korean society. Consequently, designating anti-Chinese sentiment as a major variable in deteriorating bilateral ties and placing it on the official diplomatic agenda requires reconsideration. Formalizing issues that potentially reinforce a "culprit" image is counterproductive.

Key Words: Anti-China Sentiment, Quality of Life Satisfaction,
Xenophobia, South Korea-China Relations, Social
Integration

투고일: 2026년 06월 30일, 심사일: 2026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 2026년 08월 18일